

Issue Report

2021. 10. 15.

글로벌 위기와 협력 그리고 환황해의 미래(제7회 환황해포럼 기조강연 자료)

박 춘 섭 책임연구원

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

jacobp73@cni.re.kr

이 과제는 글로벌 위기와 협력 그리고 환황해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7회 환황해 포럼의 기조강연을 위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함

CONTENTS

1. 주요내용
2. 위기란 무엇인가
3. 위기의 현황
4. 충남도 제안

요약

- 본 과제는 환황해 포럼의 기조강연을 위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함
- 기조강연의 내용은 환황해포럼의 목적인 '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'으로 기초로,
- 제7회 환황해포럼의 주제인 '글로벌 위기와 협력, 환황해의 미래'라는 중요한 주제어로 기조강연의 내용 전개함
- 최근 코로나19 등 글로벌 위기의 등장으로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, '돌발적' 위기가 아닌 '점진적' 위기에 대한 관심필요
- 소득양극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일상화된 '점진적'위기를 미래재난으로 정의하고,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현장의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
- 환황해 지방정부간 3개 협력사업(플랫폼, 시민참여, 협력)의 제안함

01 과제개요

1. 환황해 포럼의 개요 및 필요성

● 환황해 포럼의 시작과 주제

- 환황해 시대를 맞이하여 중남이 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수립한 ‘환황해프로젝트’ 일환으로 추진하였음
-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, 환경협력 방안 모색하고자 계획
- 2015년 11월 20일 ‘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 걸음’이라는 주제로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개최 후, 매년 개최하여 왔음

회차	주제
1회	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 걸음
2회	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(지방정부의 역할)
3회	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성
4회	환황해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
5회	환황해!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
6회	2020 새로운 도약 환황해!

● 환황해포럼의 기조연설

- 환황해포럼의 기조강연은 그 해의 주제에 맞추어 외부인사가 진행해 왔음
- 1회 Kathleen Stephens(전 주한미국대사), 2~5회 문정인(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), 6

회 이종석(전 통일부장관)이 기조강연을 하였으며, 통일과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제의 발표였음

- 금번 제7회 환황해포럼은 의 주제는 ‘글로벌 위기와 협력, 그리고 환황해의 미래’로 그동안 통일과 평화에 대한 주제와 달리 ‘위기’로 변경되었고 발표자 역시 외부인사가 아닌 충남도 도지사가 발표하게 됨
- 이에 ‘무엇이 위기인가’에 대한 정의, 위기의 극복방식(프로세스) 및 충청남도 역할 등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게 되어 과제를 진행하게 됨

2. 기조강연의 주요내용

● 위기의 정의

- 법률·제도상 위기
- 점진적 위기와 미래재난

● 미래재난의 상황

- 소득양극화
- 저출산·고령화

● 충청남도 대표적 정책

- 더 행복산 주택건설
-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

● 충청남도의 제안

- 미래재난의 공통적 인식
- 3개 협력사업 제안

02 위기란 무엇인가?

1. 현재의 위기보다 미래의 위기에 관심 필요

- 우리는 위기의 시대의 시대에 살고 있음
 - 현재는 위기의 시대로,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환경 등 위기적인 요소들이 표출되고 있는 시대로 판단
 - 그러나 통념상 위기는 재난(disaster)으로 인식
- 또한 법과 제도상 현재의 재난(disaster)으로 인식
 - 대통령 훈령 상(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)의 위기는 ①전통적 안보, ②재난, ③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위기
 - (우리나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) 위기는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, 경제 등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(국가안전보장회의 2004)
- 위기는 미래재난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이 필요
 - 최근 예견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출현 등에서 재난의 현재성보다는 미래성 강조필요
 - 위기의 시대의 언급은 미래적 재난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 필요에 따른 제시

2. 미래재난의 사례: Disease X → 코로나19

● Disease X

- 세계보건기구(WHO)는 2018년부터 사스, 에볼라, 지카 등과 함께 미지의 감염병인 Disease X의 연구개발에 우선순위에 포함
- Disease X의 확산으로 인간의 교역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

● 미래재난 Disease X → 코로나19로 현실화

- 비영리단체 EcoHealth Alliance에 따르면, 아직 알려지지 않은 167만 종 바이러스가 존재하며, 최대 82만 7,000종의 바이러스가 사람에 영향(감염)
- 현재 밝혀진 바이러스 소수이며, 감염병의 발생주기(5년 → 3년) 단축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

03 위기의 현황

1. 소득양극화와 저출산·고령화는 명확한 미래재난

- 돌발적이지 않은 점진적 재난이 존재

- 코로나19와 같이 돌발적인 재난에 대해 ‘위기’로 인식
- 그러나 점진적인 재난 역시 위기로 인식할 필요
- 또한 소득양극화 및 저출산·고령화는 확실성과 파급력이 큰 회색코뿔소로 인식하고 대응이 필요 (미셸부커)¹⁾

- 소득양극화의 미래재난: 소득격차 확대

- 현재 우리나라의 상위 0.1%, 1만8천명의 소득이 하위 17%, 324만명의 소득과 같으며 하위 50%의 국민이 가진 자산이 2%에 불과
- 우리나라 국민의 10명중 4명(39.1%, 2019년 통계청)이 하층민으로 인식
- 10명중 6명(64.9%)이 사회·경제적 지위 상승가능성이 없다고 인식. 10명중 7명(70.8%)은 이민의향(양승조, 2020)

1) 회색 코뿔소(The Grey Rhino)는 세계정책연구소(WPI)의 소장 미셸 부커(Michele Wucker)가 2013년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, WEF, 다보스포럼)에서 제시한 개념으로, 누구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그 영향을 간과하여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회색 코뿔소로 표현.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엄청난 충격을 주는 블랙 스완(Black Swan)과 대조되는 개념

● 저출산·고령화의 미래재난: 최저수준 출생율과 노인빈곤율

- 현재 OECD회원국 중 유일한 출생율 0명대, 0.84명(2020년) 최저수준의 저출산국이며, 2019년 비해 0.08명 감소
- 지난해 출생자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전보다 3만300명(10%)감소. 2100년 5000만 한 국인구는 1700만으로 감소예상으로, 국가존립기반 붕괴위험(조영태 2021)
-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3.4%로 OECD평균 14.8% 비교하여 최저수준
- UN 세계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 10점 만점에서 5.85점으로 전체대상국중 62위, OECD 37 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

04 충청남도의 제안

1. 충청남도의 미래재난 대응사례

● 민선 7기 ‘저출산·고령화·양극화 3대’ 적극적 대응

- ‘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’·‘어르신이 행복한 충남’·‘더불어 잘 사는 충남’ 도정목표 제시
- 이와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모범사례 구축
-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(SA) 등급

●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성과

1) 더 행복한 주택건설(충남 꿈비채) 사업

- 주거문제로 결혼출발부터 채무를 져야 할 (예비)신혼가정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시행
- 사업특징은 ①주거비 부담의 경감. 전용면적 59㎡ 경우 보증금 5,000만원에 임대료 최대 15만원으로 책정. 이는 타 임대료의 50%도 미치지 않는 저렴한 금액으로, 만약 자녀를 출산시에는 50% 임대료 경감. 두 자녀 출산시 전액면제하여 주거비 부담 대폭 경감
- ② 공간의 현실화. 59㎡(20평형)까지 제공하여 기존 원룸 및 투룸 규모의 주택이 아닌 실제 아이와 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이 살 수 있는 규모를 제공, ③안심육아환경 조성. 단지내 공립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실 등을 운영하여 안심육아환경 제공
- 건설형 915호 및 매입형 100호 등 총 1015호의 주택을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

2)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

-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시내·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하는 사업
- 2019년 11월말 현재, 총 13만 7천명 교통카드 발급(해당 고령자 18만 5천명) 및 이용
- 사업목적은 ①교통복지 실현과 형평성 제고, 수도권과 대도시는 65세이상 어르신은 전철을 무료로 이용중과 비교하여 충청남도의 경우, 버스 외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 존재하여 적극적 해소 필요하기 때문
- ②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로, 차량이동을 통해 신체적 활동과 교류가 가능하여 정신적 건강 도모 가능, ③ 경제적 부담 경감. 75세이상의 고령자의 빈곤률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 가능

2. 주변국의 저출산·고령화·양극화에 대응사례

● 일본, 양적완화 → ‘새로운 자본주의’

- 2014년 5월, 지방소멸의 위기문제에 대한 경고 ‘마스다보고서’로 시작하여 2015년 지방창생전략을 추진하면서 미래재난을 대응
- 주요한 전략은 청년에게 매력적인 거점도시 및 일자리 창출, 대도시 도쿄로부터 전출인구 확대, 임신·출산·육아 지원강화를 통한 출산율 증대
- 그럼에도 당시 일본정부(아베내각)은 양적완화를 통한 부양책을 사용함으로써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배 등 ‘저출산·고령화·양극화’ 대응치 못한 한계 존재
- 최근 기시다총리 ‘새로운 자본주의’를 표방하며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초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미래재난에 대한 대응추진

● 중국, 선부론 → ‘공동부유론’

-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2019년 현재 0.495에 달함. 개혁개방초기(1984년)의 0.227과 비교하여 심각한 수준
- 중국 상위 10%의 자산이 하위 20%의 자산의 36배, 상위 1%가 전체 부의 30% 차지

- 이와 같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, 개혁개방초기의 선부론에서 ‘공동부유론’으로 전환하여 부의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

3. 충청남도의 제안

●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Insight와 교훈

-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One Health 패러다임과 같은 소통·조직화 협력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작동되고, 이와 같은 위기대응체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름
- 이는 우리들에게 미래재난은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재인식 하는 계기
- 위의 Insight와 교훈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안

● 1) 온라인 위기극복포럼 구축 및 운영

-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개인들이 정보를 얻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엘리트와 언론이 독점하였던 정보와 지식을 거의 무료로 접근, 나아가 정보와 지식생산에 참여가능
-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지식 생산하는 원리를 집단지성으로 명명(피에르 레비)
- 집단지성은 수많은 참여자가 만드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현대의 난제를 풀기에 적합하며, 미래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‘온라인 위기극복포럼’ 설치 제안
- 현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포럼은 위기대응에 민첩하지 않을뿐더러 소통과 조직화,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. 그러므로 위기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환황해의 위기극복할 수 있는 논의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 대응 추진

● 2) 온라인 청년·시니어클럽 구성 및 운영

- 저출산·고령화·양극화와 같은 점진적인 위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제대로 된 대응하지 않음. 이유는 변화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오판할 경우가 많음
- 그러나 위기의 당사자의 경우 변화속도가 느리더라도 민감히 반응. 그리고 행동하는 속성

- 이에 재난의 당사자인 환황해의 청년과 시니어가 참여하는 저출산·고령화·양극화 대응 시민참여 클럽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개입

● 3) 온라인 데이터 공유

-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경관훼손 및 안전사고의 원인
- 충남도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, 2018년 10월, 2019년을 해양쓰레기 줄이기 원년을 선언하고,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, 쓰레기 전용선박 건조 등 노력
-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외부기관의 인정받아, 유엔 공공행정 전문가위원회로부터 공공행정상을 수여받음. 그러나 황해의 쓰레기 문제는 충남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임
- 쓰레기유입방지를 위한 각 지방정부의 해양쓰레기 데이터 공유를 제안
-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공유의 영역을 해양쓰레기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데이터의 공유 및 활동으로 전개 추진

참고자료

양승조(2020),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

충청남도 내부자료(2021)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

부형욱·최수온(2014) 국가위기 양상의 변화와 대응방향,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1호

한국산업기술진흥원(2017) 글로벌 트렌드 2035: 성장의 역설

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(2020)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1